

# ‘나스닥 진출’ 첫 단추 펜 쿠팡... ‘포 아마존’ 꿈에 한발짝

나스닥 상장 예비심사 통과  
쿠팡이츠·OTT 사업 등 진출  
포트폴리오 다각화 포석  
사측 “적절한 때 IPO 추진”

쿠팡이 올해 이커머스 기업 최초로 나스닥 상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주관사인 골드만삭스를 통해 나스닥 상장을 위한 컨피덴셜(기밀)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이에 쿠팡 측은 “적절한 때가 되면 IPO(기업공개)를 추진한다는 계획밖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쿠팡이 상장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업계는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최근 들어 쿠팡이츠, OTT 사업 진출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대규모 인재 수혈에 힘쓴 쿠팡의 행보가 상장을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도 이러한 전망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뉴스시스

김범석 쿠팡 창업자는 쿠팡 1주년 기념식에서 “쿠팡 브랜드로 나스닥에 직접 상장, 이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해외에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낸 바 있다.

2010년대 초 소셜커머스로 시작한 쿠팡은 2015년 직매입 유통으로 전환한

후 익일 배송인 로켓 서비스로 매출 10조원이 넘는 이커머스 회사로 급성장했다. 하지만, 과감한 투자로 2019년까지 약 3조7000억원의 누적 적자를 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쿠팡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거래량이 20조가 넘는

것으로 보이지만, 물류센터 정비와 쿠팡맨 고용, 배달앱 ‘쿠팡이츠’ 사업 확대 등으로 6000억~1조원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 최근에는 OTT 사업에도 뛰어들었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쿠팡플레이(Coupang Play)’를 론칭한 것.

‘쿠팡플레이’는 인기 영화, 국내외 TV시리즈 등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시간과 장소 제약없이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쿠팡의 와우멤버십 서비스에 가입한 회원이라면 추가 비용없이 무제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사업 확대로 누적 적자는 계속 늘어나는 중이다.

쿠팡은 소프트뱅크 비전펀드로부터 약 34억달러(약 3조7000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하는 등 사업성을 증명받아 왔으나, 사업 확장으로 인한 지속적 적자로 수익성에 대한 의심도 일각으로부터 제기돼 왔다.

업계는 쿠팡이 상장 성공할 경우

이커머스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 적자 구조가 이어지더라도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쿠팡은 자금조달에도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쿠팡은 최근 부동산금융 관리 담당 채용 공고를 냈다. 부동산 관련 신탁사나 증권사 등에서 3년 이상 근무해본 경력자를 찾고 있다. 채용 후에는 물류센터 건설시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융통할 때 필요한 과정 전반을 돕는 업무를 맡게 된다.

앞서 쿠팡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신디케이션 주선 등 프로젝트 파이낸싱 범부 지원을 담당할 시니어급 금융전문변호사도 모집했다. 공고에는 “물류인프라 건설프로젝트 및 국내 자금조달 파이낸싱 업무가 다수 진행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대규모 투자비 조달방식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가운데, 부동산 PF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주택공급 급한데 정비구역 잇단 일몰위기... ‘정책 엇박자’

정릉6·신수2구역 해제 심의 앞뒤  
정부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반해

서울 성북구 정릉6구역과 마포구 신수2구역 등 서울 내 일부 도시정비사업장이 정비구역 해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확대로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

11일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20일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를 열고 정릉6구역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안을 심의한다. 이번 도계위에서 정비구역 해제 여부가 결정되면 고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정비사업 일몰제는 사업 진척이 없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비구역을 해제하는 제도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정비구역 해제를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 지정 이후 2년 이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을 하지 않거나 추진위 승인 후 2년까지 조합설립인가



서울시내 일부 재개발지역 아파트 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였다. 서울 아파트 전경.

/뉴스시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3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 대상이 된다.

정릉6구역은 지난해 3월2일까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일몰제 적용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대상이 됐다. 이후 주민 동의를 받아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구역 해제 절차가 진행됐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조합을 설립했지만 2011년 취소된 이후 추진 주체를 만들지 못했다.

도계위는 마포구 신수2구역의 정비구역 해제 여부도 함께 결정한다. 신수2구역은 정릉6구역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3월 일몰기한 연장을 신청했으나 주민 반대가 커 무산됐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해당 구역의 해제를 요청했다.

지금까지 정비사업 일몰 대상에 들었던 서울 재개발·재건축구역은 모두 24곳이다. 정릉6구역과 신수2구역을 제외한 22곳 가운데 강남구 압구정특별계획3~5구역을 포함한 19곳이 일몰기한 2년을 연장받았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 주택공급책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주 부동산시장 점검관계장관회의에서 지난해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확대에 의한 주택공급을 점검하고 역세권 주택 확장 공급을 위한 논의도 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이어 “올해 주택 공급 물량이 입주 기준으로 평균보다 많은 46만가구가 예정됐다”며 “서울 기준은 8만3000가구 정도인데 서울 공급 물량 부족 인식 때문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부동산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기자 ywi964@



KOTRA 하노이무역관 화상상담장에서 베트남 바이어가 국내기업과 사전 화상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코트라, 수출 돌파구 마련 韓기업 신남방 진출 지원

KOTRA(코트라)가 오는 12일부터 2주간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위기 조기 타개를 위해 신남방 전략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11일 코트리에 따르면 이번 온라인 수출상담회는 신남방 대부분 국가들의 입국 제한 장기화로 해외출장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2021년 수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련했다. 국내기업 180여개가 참가하고 총 300여건의 화상상담을 진행한다. 아울러 이 지역 수출규모 확대를 위해 수출경험이 없는 내수기업들과 해당국가에 수출이 없는 기업 600여개사를 발굴해 바이어 발굴과 후속 거래 지원 등도 지원한다.

베트남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주방용품 등 소비재 분야 대형유통망 및 벤더들과의 화상상담회가 개최되고, 건축장비, 건축기자재 분야 바이어 상담도 다수 예정돼 있다. 특히 베트남 수출경험이 없는 유망기업 300개사를 발굴하고 집중 지원해 이 지역 수출규모 확대를 위한 추가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태국에서는 K-드라마 인기를 등에 업고 K-화장품, K-식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상담이 다수 이뤄질 예정이다. 싱가포르에서는 대형 온라인 쇼핑몰 Qoo10 입점을 위한 유망벤처와의 화상상담과 조선기자재 수출을 위한 바이어 화상상담도 진행된다.

/양성운 기자 ysw@

## 외인, 작년 韓 주식 24.4兆 팔아치워... ‘역대 세번째’ 규모

상장주식 전체 41% 미국 보유  
코스닥선 지난달 1.3兆 사들여

외국인이 지난해 국내 주식시장에서 24조원 넘게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으로 지난 2007, 2008년 이후 역대 3번째 매도규모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 외국인 순매도액 2조6880억원을 순매도해 두 달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다. 코스피시장에서는 3조9900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시장에서는

1조302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미주가 각각 2조6000억원, 1조3000억원 규모로 순매도했다. 유럽과 중동은 각각 1조2000억원, 4000억원 순매수했다.

국가별로는 싱가포르(-2조2000억원), 미국(-7000억원) 등은 매도 규모가 컸다. 반면 아일랜드(9000억원), 프랑스(5000억원) 등은 순매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으로 보면 외국인은 상장주식 총 24조4000억원을 팔아치웠다. 순매도 규모로는 지난 2007년 24조

5000억원, 2008년 36조2000억원 이후 최대치다.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의 상장주식 보유 규모는 76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89조1000억원이 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이 317조4000억원을 보유해 외국인 전체의 41.5%를 차지했고 ▲유럽 234조6000억원(30.7%) ▲아시아 97조2000억원(12.7%) ▲중동 29조7000억원(3.9%) 등의 순이다.

채권시장에서도 자금을 회수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